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③ 제11 권보탑품

권보탑품 증명법화

이 '권보탑품'이 지금까지와 다른 것은 그 다보불(多寶佛)이라는 부처님이 칠보탑(七寶塔) 속에 전신(全身)이 흩어지지 않는 몸으로—석가모니불은 그 사리가 시방으로 분산되어 사리탑에 봉안되었지만—앉아 계시면서 보배탑과 함께 출현하였다고 하여, 불탑과 결부시켜 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화경>에는 여러 곳에 탑공양과 조탑공양(造塔供養)이 실려져 있어 이 <법화경>의 기반에 강한 불탑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권보탑품'은 그것을 보배탑 출현이라는 극히 구체적인 형식을 취해 설하고 있다.

그런데 다보불에 의한 <법화경>이 진실하다는 증명—이것을 증명법화라 한다—은 '서품'에서부터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하신 설법을 진실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을 증명하기 이전이라는 뜻에서 '증전(證前)'이

다. 여기서 '제16장 여래수량품'에 이르러 지금의 석존은 실제로는 아득하면 옛날에 성불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 본문(本門)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이 밝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보탑품'에서 다보불의 보배탑, 석존의 시방분신(十方分身)의 여러 부처님 등을 실마리로 하여 후의 본문 '수량품'이 불러일으켜지는데 이것을 '기후(起後)'라고 한다. 그러므로 앞의 '증전'과 함하여 '증전기후(證前起後)'라고 하며 다보불의 보배탑을 '증전기후의 보배'이라 부르고 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11장'이 현재의 형태로 정리되기 전에는 독립된 경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똑같이 독립된 경전으로서 유포되고 있던 '제바달다품'과 더불어 법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독송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

불탑신앙 '보배탑출현'으로 설명 다보불 '법화경의 진실성' 증명

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밝힌 신 1승진실, 3승방편과 2승작(二乘作佛)의 설법을 가리키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이고 실제로는 <법화경> 전체의 설법을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에 다보불이 계신 보배탑을 열기 위해 석존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이 밝혀지고 그 여러 부처님이 와서 모이는 것이 설해지는데 이것을 '기후(起後)'라 칭한다. 여러 부처님이 모임으로써 보배탑이 열리고 석존께서 보배탑 안에 들어가 다보불과 자리를 나누어서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는다. 그 후에 아래에서 설하는 것처럼 석존께서 세 가지의 고칙(告勅)에 의해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의 유통(流通)을 맡을 사람을 불러 모으자 뒤의 '제15장 중지용출품'에서 부처님 멸도 후의 유통을 담당할 보살들이 땅에서부터 출현하고, 이들의 보살들이 모두 전생에서 석존의 제자였음이 밝혀진다. 그러자 이 법회에 모인 대중은 지금의 석존과 땅에서부터 솟아난 지용(地涌)의 보살들과의 결부에 대해 의문을 일으킨

그런데 여기 하나의 큰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 다보여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칠보탑과 함께 출현하여 <법화경>이 진실한 가르침이다"고 증명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법화경>에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인도의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은 그의 저서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말하기를 "그 옛날 다보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당시의 중생들의 근기가 미숙하여 <법화경>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지 못하고 열반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을 다보여래 자신은 설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진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르침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하겠다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석가모니부처님이 설하시는 <법화경>이 진실하다고 증명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설정사 조실

"산이 참 좋지요? 이곳은 어머니 품속같이 고요하고 편안하면서도 생각이 있어. 여기 앉아 산에 몰입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참 좋아. 안개에 싸여 신하리가 반쯤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봉오리 끝만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만이야."

스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피어오르던 망상이 잠시 산하리를 휘도는 물안개로 향한다. 입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며 모든게 정지한 듯한 순간이 된다. 한사코 법문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스님에게 은사스님에 대해 여쭙었다. 송암스님의 은사는 당대의 선승이었던 경봉스님이다. 은사스님을 회고하는 스님의 얼굴에 보일 듯 말듯한 미소가 한동안 번졌다.

"우리 스님을 한 3년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는 참 헛되지 않았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도 그 시절이 새록새록해. 무척 인자하시면서도 서릿발같은 기상을 간직하신 분이었어. 천지를 뒤튼들 정도의 기상 말이야. 그리고 칭찬을 잘 하지 않았는데 '공부 더 해라' 하는 말씀이 최고의 칭찬이요, 격려였어." 스님의 말씀에는 경봉스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역력했다. 경봉스님을 찾는 사람들이 통도사 극락암에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스님의 작품을 소장하는 인연이나마 지어보려는 이들이 줄을 섰다. 어떤 날은 보살 한사람이 스님앞에 와서 눈물부터 흘렸다. 경봉스님은 "와 우노"하고 물었다. "저는 10년동안 스님께 다녔는데 스님 글씨 하나 못얻었으니 이제 집에 못갑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스님은 불편한 몸을 일으켜 글을 써주었다.

"불자들이 막무가내로 스님의 법문을 청하고 집 하나라도 찢어 달라고 야단들이니 쉬실 수가 없었어. 마음이 아파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지. 그 정도로 우리 스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우셨지."

스님은 문득 어느 날 새벽 문안을 드리러 갔던 일을 들려주신다.

"계승을 하나 알려주시고는 좋제? 하고 물으시더군. '예' 하고 대답을 했더니 내가 나중에 써 주마 하시더군. 나중에 시자가 불러 다시 가보니 '떡 갈아라' 하시대. '뭐하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까 그 글 써 주겠다고 하셔, 불편한 몸으로 그러시는 게 송구해 다음에 써 주십시오 했다가 천천백력같은 고함을 대담으로 듣고 말았지."

그렇게 받은 글이 스님의 방에 걸려 있었다. 1977년 1월 10일 이른 아침에 쓴 그 글이 시공을 넘어 경봉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경봉스님의 평등심과 자비심에서 스님은 질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것과 불법은 차별이 없음을 체득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은 찾아오는 이면 누구나 만나 삶의 지혜를 일러준다. '제 분수를 지키며 살라'거나 '마음 자리를 잘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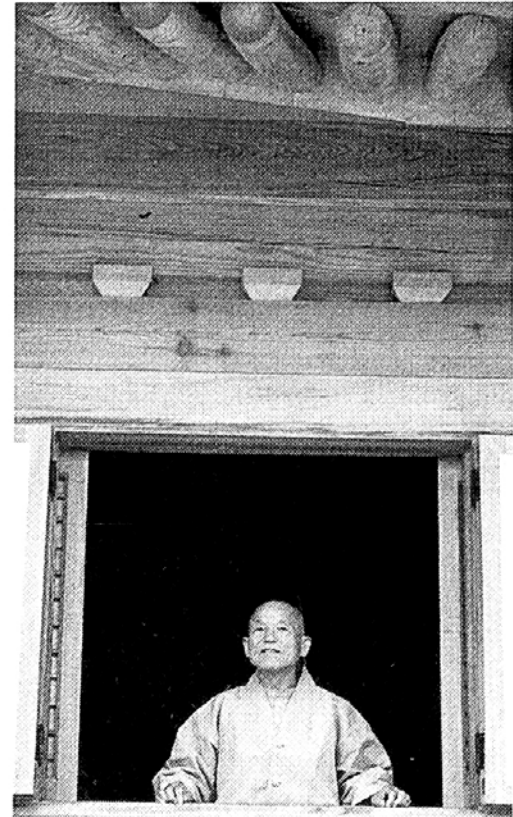
"나때문에 불편한 사람 없어야"

"찾아올 것 없어. 산속에 사는 늙은이 찾아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러나 여름 장마처럼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죽림정사를 찾았다. 죽림정사를 병풍처럼 둘러싼 대숲의 푸른 바람이 쐬어야 쐬어야 비소리를 보태며 기자를 반겼다. 분명 그렇게 느꼈다. 차에서 내리자 법당의 문이 열려 있고 스님 한분이 밖을 내다보고 계셨다. 송암스님이셨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뭐하러 찾아왔어? 나는 공부한 것도 없고 부처님법만 축내는 사람이라 할 말이 없으니 감은사지 탑에 가서 무언의 설법이나 듣고 가." 한동안 말을 잃고 비소리만 듣고 있더니, 스님은 "정 법문이 듣고 싶으면 문무왕릉에 가서 파도소리 듣고 가라"고 하신다.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죽림정사는 감은사지와 문무대왕릉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스님은 짐짓 똑같은 말씀으로 번거로움을 피해보시려 함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스님의 모습에서 감은사지 탑을 보아야 할 것이고 스님의 음성이 문무왕릉의 파도소리를 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은사지 석탑에 간들, 또 끝도 없이 이어지는 통해 앞바다의 파도를 본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때마침 거센 바람이 앞산을 향해 난 창문 한쪽을 열어젖혔다. 쐬어야- 빗소리가 높아지며 바람이 시원하게 밀려온다. 창문을 등지고 있다 몸을 돌려 열린 창으로 보이는 앞산에 눈길을 주자 스님은 생각난 듯 말문을 열었다.



그냥 산을 보고 앉았으면 저산이 내산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내면의 것으로 가져가는 순간부터 산이 무이게 된다. 마음속으로 산을 간조하시는 송암스님.

가까이서 뵈 큰스님

송 암 스님 (죽림정사 조실)

밥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그것 하는 놀이 무엇인가
관하고 살펴야 돼
그것이 참선이야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제 분수를 잘 지키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펴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이다.

"관심일법(觀心一法) 총섭제행(總攝諸行).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 이렇게 안되니까 이런저런 말이 생기고 갖가지 수행법들이 생기거든. 밥 먹을 때나 걸을 때 그것을 하는 놀이 무엇인지 관하고 살펴야 해. 그것이 참선이야. 그렇게 참선을 잘하면 흐릿한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을 차려서 살 수가 있게 돼. 일부러 좋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펴 나쁜 일을 하지 않게 출발이야. 또 니로 인해 불편한 사람 만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죽한

거야. 그리고 천당에 가서도 내 마음 편치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듯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괴롭게 살지 말어. 그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려면 일체를 하는 그놈을 관해야 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참선의 거지."

스님은 마음 공부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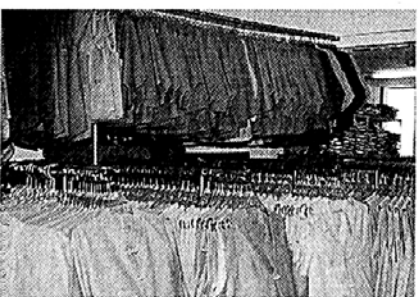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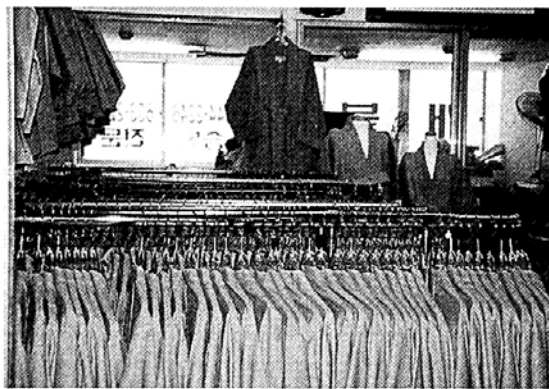
"집에 비유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집을 지키는 주인이 정신이 또렷하고 눈이 초롱초롱하면 도둑이 합부로 그 집을 넘볼 수가 없겠지? 그 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훔쳐갈 수 없겠어? 그러나 대궐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그 집을 지키는 주인이 흐리멍덩하고 정신을 탄대 빼앗기고 있다면 도둑이

천개불심



천개 불심

천개 불심



「장삼」

「동방」

「누비」

「누비적삼」

「차이나면」

「차이나칠부」

「적삼」

「동방」

삼보에 귀의합니다.

천개불심은 송복(법복)의 대명사입니다. 저희 천개불심은 불심(佛心)을 바탕으로 송복문화와 새롭게 열어가는 임차입니다.

한벌의 옷을 짓는 마음에는 가족을 위한 바느질의 정성과도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을 짓는 정성이 한뼘 한뼘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불심이 깃든 송복(법복)을 수하십시오. 불세계로의 출발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천개불심으로 오십시오.

대표 문수환 합장

천개불심 오시는 길

